

유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Mother's Characteristics, Disciplinary Methods, &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ssociated with Young Children's Aggression

우암 어린이집
원 장 오 희 옥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오 선 영
교 수 김 영 희

Uam Day Care Center
Principal : Hee Ok, Oh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ildwelfare
Doctoral Course : Sun Young, Oh
Professor : Yeong Hee,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other's characteristics, mediated by disciplinary methods and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on young children's aggression.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342 young children drawn from seven preschools in Cheongju city. The pilot study was use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survey instrument. Data were analyzed by the method of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s α , factor analysis, T-test, F-test, and Duncan post-hoc test using SPSSWIN program. The test of model was done with analysis of correlational matrix in LISREL VII package using a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her's characteristics consisting of neurosis symptom and extroversions, disciplinary methods consisting of coercive-punishment and indifferent-irresponsibility,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young children's aggression consisting of relation and overtness according to some socio-demographic variables. Girls had the higher emotional regulation than boys.

Second, the direct effects of disciplinary methods and emotional regulation on boys' aggression were different in betwee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Third, the variables predicting boys' emotional regulation directly were the same in both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Forth, the direct effect of mother's characteristics on disciplinary methods was different in between coercive-punishment and indifferent-irresponsibility. Fifth, the indirect effects of mother's characteristics, mediated by disciplinary methods and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on young children's aggression were partly supported in this study. Sixth, the theoretical model of the impact of mother's characteristics, disciplinary methods, and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on young children's aggression was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주제어(Key Words): 공격성(Aggression), 성격특성(Mother's Characteristics), 훈육방식(Disciplinary Methods),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I. 서론

유아기 공격성이 청소년기의 공격성이나 비행, 범죄 등을 예측하는 단서가 됨이 밝혀짐에 따라(Coie & Dodge 1998; Rubin, Stewart & Chen, 1995) 아동의 공격성은 학자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적대감이 높고(Gouze, 1987), 관계를 손상시킬 정도로 적대감을 표현하며(Graham, Hudley & Williams, 1992), 타인에게 해가 되는 공격성 표현에 죄의식이 없으며(Crick & Dodge, 1989),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정적 대응과 파괴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Slaby & Guera, 1988), 한편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이러한 특성들이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Hall, Herzberger & Skowronski, 1998). 이러한 성격 및 행동특성은 아동기 공격성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유아기 공격성의 중요성을 제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격성의 초기연구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지고, 여아보다는 남아의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했으나(Offord, Boyle, Szatmari, Rae Grant, Links, Cadman, Byles, Crawford, Blum, Byrne, Thomas, & Woodward, 1987), Bjorkqvist, Lagerspetz, & Kaukiainen (1992)은 공격성의 성차는 신체적·언어적 공격성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최초로 공격성을 신체적, 언어적, 간접적 공격성으로 세분하였다. 이후 공격성과 사회적 적응을 관련하여 남아는 외현화 공격성을 보이며, 여아는 대인관계 공격성을 보인다는 성차를 보고했다(Crick & Grotpeter, 1995). 반면 Tomada와 Schneider(1997)는 외현화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나타나지만, 관계적 공격성은 성차가 거의 없음을 보고했으며, David와 Kistner(2000)는 공격성의 성차는 공격성 유형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지만 관련요인이나 상황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공격성의 성차를 설명하는데 주요한 기제가 된다고 강조하면서 공격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최근 연구들은 공격성에 관련된 유아의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Tallandini, 2004), 특히 유아를 둘러싼 환경 중에서도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는데, 주로 어머니의 직접적 반응양식인 양육방식이나 훈육방식이 유아의 공격성과 가지는 관련성을 살펴보았다(김정희, 2001; 박혜경, 박성연, 2002; 이동희, 2003).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가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하거나 비일관적인 훈육태도를 보일 때 부모의 통제에 대한 유아의 반발과 적대감으로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의 공격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아와 부모가 갈등이 깊어지면 관계의 안정성을 파괴할 수 있어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공격성에 관련성을 밝히고 있는데, Galambos, Barker와 Almeida (2003)는 공격성과 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련된 어머니의 훈육방식은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메타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또한 Hough와 Schneider (1996)는 부모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신경증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통제방식, 훈육방식과 같은 어머니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진순옥(2002)은 어머니가 외향적인 성격특성일 경우에는 자녀의 까다로움이나 문제행동을 아이다운 특성으로 지각하고, 활동성이 많은 유아에게는 오히려 지지적인 훈육방식을 취한다고 하였다. 반면 신경증적 성격특성을 지닌 어머니의 경우에는 유아의 개인특성과 상관없이 유아에게 더 통제를 가하고 비일관적인 방식으로 훈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최영희, 1993).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력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Angold & Costello, 1995). 또한 또래관계를 통해 살펴본 유아의 공격성은 어머니 관련변인 이외에 유아의 기질이나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Tremblay, Masse, Vitaro, & Dobkin, 1995).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 공격성을 많이 가진

다고 밝혔으나 (Rothbart & Bates, 1998) Pope와 Bierman(1999)는 공격적 행동표출이나 부정적인 감정표현은 유아 기질보다는 자신의 감정상태를 인식하고 조절할 줄 알며, 상대방의 사고·감정·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기초적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과 더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공격성을 연구하고자 할 때 어머니 관련변인이나 유아 개인 관련변인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선택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유아의 공격성은 유아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연구와 성에 따라 공격성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로 인해 공격성에 관련된 변수들을 한 모델 안에서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조기개입 방안을 탐색해 보고 부모교육이나 유아교육 및 상담현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성격특성,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공격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성격특성,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경로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가설적 연구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가설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1. 유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의 신경증과 외향성, 강압적 체벌과 방임적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다.
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의 신경증과 외향성, 강압적 체벌과 방임적 훈육방식이다.
3. 어머니의 강압적 체벌과 방임적 훈육방식에 직접적인 영

- 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의 신경증과 외향성이다.
4. 어머니의 신경증과 외향성, 어머니의 강압적 체벌과 방임적 훈육방식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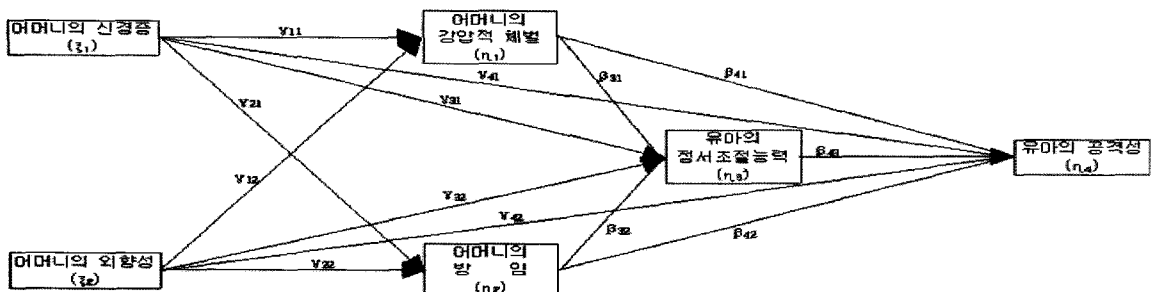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유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1) 공격성의 정의 및 유형

공격성은 학자마다 다른 관점으로 정의되는데, 공격성 개념은 관찰 가능한 행동 특성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정의하거나,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를 포함시켜 정의한다. 전자는 의도는 고려하지 않고 행동의 결과만을 강조하여 '상대방에 대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 (Loeber & Stoithamer-Loeber, 1998)으로 정의했고, 반면 후자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의도를 강조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정의된다(Berkowitz, 1993; Coie & Dodge, 1998).

이러한 공격성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초기 연구자들은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으로 분류(Lesser, 1959)하였고, 적대적 공격과 도구적 공격, 합법적 공격과 비합법적 공격으로도 구분(Feshbach, 1970)하였다. 또한 공격성의 유형을 폭행, 간접적 공격, 흥분, 부정, 언어적 공격을 합쳐 공격성이라 하고 원한과 의심을 합쳐 적대감이라고 하였다(Buss & Durke, 1977). 이후 유형분류가 체계화되어 공격성은 도구적 공격성과 적대적 공격성으로 구분되었으며(Hartup, 1974; Perry & Bussey, 1984), Frodi, Macaulay와 Thome(1977)은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으로 분류했다. 또한 Kagan, Mussen과 Conger(1979)는 표현방법에 따라 공격성을 행동적 공격성과 내재적 공격성



<그림 1>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모델

으로 구분하였다.

공격성이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연구에 의해 Crick과 Grotmeter(1995)는 여아에게 나타난 공격성 설명을 위해 대인관계 공격성을 도입하였고, 외현화 공격성과 대인관계 공격성으로 유형화했다. 외현화 공격성이란 개인이 공격유발 대상에게 직접 행하는 신체적·언어적 공격을 포함하며, 대인관계 공격성은 집단의 힘과 압력을 이용하여 한 개인을 위협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소외·배제하려는 집단적 공격 형태이다. 이들 공격유형은 여러 문화권에서 입증되었고(Hart, Nelson, Robinson, Olson, & McNeilly-Chique, 1998; Tomada & Schneider, 1997), 국내에서도 이들 유형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김민정, 도현심, 2001; 이정희, 1998). 또한 공격성을 외현화 공격성과 대인관계 공격성으로 분류해 살펴본 연구는 외현화 공격성은 남아가 높고, 대인관계 공격성은 여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공격성을 이분법적으로 개념화했다(Crick & Grotmeter, 1995; Galen & Underwood, 1997).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대인관계 공격성이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여아에게서 높게 나타났던 대인관계공격성이 남아에게도 나타난다고도 보고하였다(김민정, 도현심, 2001; Hart et al., 1998). 이처럼 공격성에 대한 성차는 아직도 논란이 되며, 특히 공격성의 하위유형에 따라 성차가 있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공존하므로 공격성 하위유형에 따른 성차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차에 따른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해 Crick과 Grotmeter(1995)가 유형화한 외현화 공격성과 대인관계 공격성을 유아에게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유아의 공격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 개념은 학자들의 논쟁이 되었고, Thompson(1994)은 정서조절을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서적 반응, 특히 강력하고 일시적인 정서적 반응특성을 모니터하고 평가·수정하는 외적인 과정과 내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정서조절의 범위는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는 능력과 관련성을 갖으며, Casey(1996)는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정확하게 지각·평가할 수 없는 사람은 문제의 원천이 무엇인지 인식 못하고 그에 따른 조절책략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서조절은 정서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정서조절이 가능함에 초점을 둔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알기위해서 우선 정서조절능력을 포함한 기질에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박혜경, 박성연, 2002), 기질 중에서 정서성은 건강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고(Saarni, 1999), 또래간 인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유아의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abes, Eisenberg, Hanish, & Spinrad, 2001; Garner & Estep, 2001). Denham등(1991)은 유아기의 정서능력 부족은 현재생활뿐 아니라 인생전반에 걸쳐 위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유아의 정서능력이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했다. 한편, 유아의 기질과 대처반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유아의 기질 중 주의력 통제능력이 낮고 정서 강도가 높은 유아는 분노와 좌절을 공격적 행동이나 감정발산과 같은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Fabes & Eisenberg, 1992), 같은 맥락에서 정서 강도가 강한 유아는 화났을 때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일이 거의 없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반응한다(Parker & Asher, 1987). 또한 감정을 잘 관리하고 혼란스러울 때 스스로를 진정시킬 줄 아는 유아는 공격적 행동유발상황에서 혼란을 느끼는 일이 드물고(Gottman & Katz, 1989),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유아는 충동적 표현의 조절능력에서 결핍 현상을 보이며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유아는 대인간의 상황에서도 타인의 의도를 잘못 알고(Dodge & Coie, 1987), 타인이 느끼는 것을 공감하지 못한다(Ellis, Rogeff & Cromer, 1982). 그리고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유아는 사려성이 결핍되어 대인관계에서 충동적·공격적이며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폭력과 일탈을 일삼는 반사회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Goodman, Brogan, Lynch, & Fielding, 1993). 또한 관계적 공격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이 정서적 고독감,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Crick & Grotmeter, 1995), 분노나 공격적인 행동유발상황에서 기본변화에 따라 정서조절을 하지 못해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하는 남아는 주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고, 교사평가에서도 높은 공격성향을 보였다(박혜경, 박성연, 2002). 따라서 일련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유아의 공격성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련한 연구에 비해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반면 그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정서조절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서에 관한 여러 개념들 중에서도 최근 관심이 증가하여 연구가 활발한 정서조절능력(Shields & Cicchetti, 1998)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유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성격특성 및 훈육방식

부모의 성격은 행동결정인자로서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나 자녀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며, 일반적으로 성격을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으로 구성하고 이들은 성격특성을 분류하는데 유용한 체계로 사용된다(Hough & Schneider, 1996). 특히 외향성과 신경증은 Eysenck(1967)과 성격심리학자들에 의해 타당성이 입증

되었는데, 외향성은 개인의 외부지향성 정도를 의미하며,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출하는 경향이 높아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타인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정택, 심혜숙, 1991). 또한 신경증 성향은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기분변화가 심하며, 지나치게 근심걱정을 하거나 불안과 우울성향을 가지며(Eysenck, 1982),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와 정적상관이 있고 부모성격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연구되어졌는데, Becker(1964)는 심리치료를 받는 유아의 가족과 정상가족을 비교 연구하였다. 심리치료를 받는 유아의 부모는 적응 어려움이 있었고 자녀에게 일관성이 없었고 공격성을 포함한 문제행동을 가진 유아의 어머니는 독재적이고 활동적이며 심술궂거나 암시적이었다. 또한 충동성이 적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며 육아책임 방법을 연구하며 자녀들에게 적절한 통제를 가하고(Buss & Plomin, 1975), 어머니가 신경증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모에 비해 유아의 문제행동인 공격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Davies & Cummings, 1994).

한편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방식에 따라 의사소통을 하며, 부모의 기대는 또다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할 때 기대하는 부모의 역할로서, 부모됨의 심리적 측면을 나타낼 수 있고, 훈육방식은 부모가 아이의 잠재적인 잘못된 행동이나 직접적으로 나타난 나쁜 행동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반응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최연희, 2001). 만3-5세의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alzada와 Eyberg(2002)는 훈육방식을 강압적 체벌, 방임, 논리적 설명으로 어머니의 훈육방식을 분류했다. 강압적 체벌은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통제를 할 때 신체 혹은 언어적 체벌을 사용해 자녀의 행동통제를 강압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방임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상황을 통제·훈육할 때 묵인하거나 무시하여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훈육 자체를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논리적 설명은 부모가 자녀행동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자녀로 하여금 통제를 받은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돕는 훈육방식을 의미한다.

박세은(1994)은 자녀를 지도·훈육할 때 권위적인 명령이나 체벌을 사용할수록 유아의 공격성, 위축, 과잉행동, 퇴행행동이 높음을 강조했고, 부모의 물리적 훈육방식은 상황에 따라 자녀학대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부모가 물리적 훈육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녀는 쉽게 화내고 분노조절이 힘들어 적대적·폭력적이며 공격적 성향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김경희, 2002). 또한 적대적이거나 무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대체로 비행아가 많으며, 공격적인 감정을

발산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김성태, 1984). 김민정, 도현심(2001)에 의하면, 아버지의 신체적 처벌은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 모두와 관계가 있었고, 여아는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가 신체적 처벌을 사용할수록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 이를 통해 부모가 신체적 처벌을 할 경우, 유아는 부모를 모델링함으로써 공격적 성향을 갖게 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를 할수록 유아는 적대적·공격적으로 성장한다는 연구결과(이원영, 1983; 이현순, 1982)는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공격성간의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성격특성이나 훈육방식은 직접·간접적으로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에서도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외향성과 신경증이고, 유아의 공격성을 높이는 훈육방식은 강압적 체벌과 방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 외향성과 훈육방식 중 강압적 체벌과 방임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관련된 어머니의 성격특성 및 훈육방식

정서는 개인의 내적·주관적 감정상태로 정의되었으며(Campos, Campos, & Barrett, 1989), 또한 정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유기체의 심리학적, 인지적, 생리적, 경험적 체계를 포함하는 복잡한 현상으로 정의되었다(Izard, 1977). 정서개념 변화는 맥락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Campos, Campos, & Barrett, 1989)으로 정서조절능력, 즉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에 관심을 갖게 했으며, 정서의 기능주의적 관점이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따라 연구자들은 정서조절의 개인차를 밝히기 위해 여러 연구방법들을 사용하였다. Fox, Kagan과 Porges등은 생리·심리학적 접근을 하였는데, 생물학적인 원인이나 과정을 밝히기 위해 신체적인 반응성과 신경·생리학적 측면의 정서조절과정을 두뇌의 EEG(Fox, 1994), 심장 박동률의 변화(Kagan, Reznick, & Snidman, 1988), 신경계 변화(Porges, Doussard-Roosevelt, & Maiti, 1994)를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정서조절에 대한 생리·심리학적 접근의 연구과정에서 환경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Eisenberg(1992)등은 환경적 접근으로 아동을 둘러싼 주변환경을 중심으로 양육자나 교사, 또래보고를 통해 정서조절의 개인차나 과정을 파악했다(Eisenberg, Fabes, Carlo, Troyer, Speer, karbon, & Switzer, 1992; Field, 1994). 인간행동발달은 유전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데(Riegel, 1973), 정서조

절능력도 타고난 특성과 사회화의 두 측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결과이다(Rubin, 1998). 하지만 정서조절에서 양육행동이나 모델링을 통한 사회화의 측면을 강조한 맥락주의자들은 부모의 성격특성, 양육행동이나 훈육방식, 가족의 정서적 표현성 등 환경적 요인을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으므로 사회화의 대행자인 어머니의 성격특성 및 훈육방식은 아동의 정서조절에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유아의 기질 중 정서조절 능력과 어머니의 성격특성 및 훈육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일치되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히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변인으로 놓고 어머니의 성격특성, 훈육방식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드물다. Belsky(1984)는 유아와 부모의 상호작용에 유아의 기질적 특성보다는 부모의 개인적 특성이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훈육방식과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연구한 Gottman과 Katz(1989)는 부모의 훈육방식이 부정적일수록 아동들은 분노를 표현하며 순종적이지 않고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Eisenberg, Fabes, Carlo, Troyer, Speer, Karbon과 Swizer(1992)는 5-6세와 8-9세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아동의 정서적 반응을 조사하였는데, 엄격한 처벌을 하는 어머니일수록 아동은 동정적이고 슬픈 정서반응을 보이며, 이런 어머니들은 정서와 관련된 표현을 통제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를 다루는 것을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 일련의 연구들(Hardy, Power & Jaedicke, 1993; McFadyen-Ketchum, Bates, Dodge, & Pettit, 1996)에서도 부정적인 부모의 훈육방식이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이나 낮은 정서조절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했다. 3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아동의 자기 통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곽혜경, 조복희, 1999)에서 어머니의 단호한 제한이나 아동의 주의를 전환시키는 방법이 아동의 자기통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최근 양연숙과 조복희(2001)가 12-18개월의 타인양육 영아들을 대상으로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특성과 영아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타인양육의 질이 상호작용하여 영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었다. 박일현(1995)은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유아의 기질에서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 아동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 성격의 유전을 생각할 수 있고, 이 결과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양육자의 성격특성 그리고 유아와 양육자의 상호작용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모의 성격특성이나 훈육방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한 7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와 어머니 3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각 어린이집을 통해 가정으로 배부한 질문지를 유아의 어머니가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한 것을 연구자가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이해도,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5년 3월 21일부터 23일 까지 40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질문지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질문지로 2005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4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총345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4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76%이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성격특성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Eysenck와 Eysenck(1975)가 제작한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를 근거로 측정하였다. EPQ는 Eysenck와 이현수(1985)가 한국인에 맞게 표준화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일부 수정한 전현진, 박성연(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EPQ는 강인성 혹은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내향성, 정서성 혹은 신경증적 경향성, 그리고 허위성 혹은 사회적 욕망성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어머니의 행동이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향성과 신경증적 성향으로 밝혀졌기 때문에(전현진, 박성연, 1999),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 13문항과 신경증 17문항으로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향과 외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신경증 .88, 외향성 .84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훈육방식

어머니의 훈육방식은 Calzada와 Eyberg(2002)가 사용한 Parenting Style and Dimension(PSD)을 이동희(2003)의 연구에서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SD는 논리적 설명, 강압적 처벌, 방임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강압적 처벌과 방임으로 밝혀졌기 때문에(이동희, 2003), 본 연구에서는 강압적 처벌 9문항과 방임 5문항으로 어머니의 훈육방식을 측정하였으며,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강압적 처벌과 방임의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계수는 강압적 체벌 .76, 방임 .60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사회적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이정란(2003)이 개발한 '유아의 자기조절 척도' 중 정서조절을 측정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4) 유아의 공격성

유아의 공격성은 Achenbach와 Edelbrock(1984)의 Behavioral Check List와 하은혜,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1995)의 K-CBCL 및 Lazelere, Ambersun와 Martin(1989)의 TBC에서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선택하여 박희분(2002)이 유형·분류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거쳐 대인관계 공격성 15문항과 외현화 공격성 10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대인관계 공격성 .87, 외현화 공격성 .8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과

LISRELVII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와 백분율, 신뢰도, 요인분석, t-test, F-test,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LISRELVIII를 이용한 경로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유아는 남아 52.5%, 여아 47.5%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 54.6%, 둘째 34.7%, 셋째이상 10.7%였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3세 18.9%, 만4세 37.8%, 만5세 43.4%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총수입은 월평균 200만원미만이 32.7%로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42.9%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1.8%로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은 어머니의 경우 30세이하 16.4%, 31~35세 54.9%, 36세이상 38.7%로 나타났으며, 아버지는 35세이하 47.6%, 36세이상 52.4%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보면, 아버지는 2년제 대졸이상 61.8%, 어머니는 고졸이하가 51.3%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 35.7%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가 46.7%로 나타났으며, 전업 주부가 53.3%의 분포를 나타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유아 성	남	177(52.5)	유아 출생 순위	첫째	184(54.6)
	여	160(47.5)		둘째	117(34.7)
계	337(100.0)	셋째 이상		36(10.7)	
가족 수입	200만원 미만	110(32.7)	계	337(100.0)	
	200~300만원미만	107(31.8)	종교	불교	88(25.9)
	300~400만원미만	73(21.7)		기독교/천주교	106(31.2)
	400만원이상	46(13.7)		무교	146(42.9)
	계	340(100.0)	계	336(100.0)	
유아 연령	만3세	64(18.9)	가족 형태	핵가족	279(81.8)
	만4세	128(37.8)		확대가족	32(9.4)
	만5세	147(43.4)		한부모 가족	30(8.8)
	계	339(100.0)	계	341(100.0)	
모연령	30세 이하	53(16.4)	부연령	35세 이하	156(47.6)
	31~35세	178(54.9)		36세 이상	172(52.4)
	36세 이상	93(38.7)		계	328(100.0)
	계	324(100.0)	부직업	공무원/전문직	70(21.7)
모직업	유	154(46.7)		사무직	115(35.7)
	무	180(53.3)		상업/서비스	114(35.4)
	계	334(100.0)		무	23(7.1)
모학력	고졸 이하	175(51.3)		계	322(100.0)
	2년제 대졸 이상	166(48.5)	부학력	고졸 이하	124(38.2)
	계	341(100.0)		2년제 대졸 이상	201(61.8)
	계	341(100.0)		계	325(100.0)

〈표 2〉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성격특성,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공격성의 차이

종속변인 독립변인		신경증		외향성		강압적체벌		방 입		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공격성		외현화공격성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유아의 성	남아	177	1.88 (.44)	177	2.15 (.49)	177	1.85 (.36)	177	1.57 (.41)	177	2.44 (.49)	177	1.85 (.42)	177	1.67 (.41)
	여아	160	1.86 (.41)	160	2.09 (.47)	160	1.81 (.35)	160	1.59 (.43)	160	2.55 (.47)	160	1.87 (.49)	160	1.63 (.40)
	t	.35		1.08		1.22		-.42		-2.05*		-.35		94	
유아의 연령	만3세	64	1.90 (.49)	64	2.20 (.43)	64	1.90 (.49)	64	1.64 (.48)	64	2.38 (.46)b	64	1.98 (.47)a	64	1.75 (.43)
	만4세	128	1.89 (.42)	128	2.16 (.53)	128	1.89 (.42)	128	1.56 (.39)	128	2.45 (.46)ab	128	1.88 (.46)ab	128	1.65 (.40)
	만5세	147	1.84 (.41)	147	2.05 (.46)	147	1.84 (.41)	147	1.58 (.40)	147	2.56 (.51)a	147	1.81 (.44)b	147	1.62 (.39)
	F	.56		2.88		.21		.68		3.53*		3.15*		2.28	

*p<.05 a, b: Duncan post-hoc

2. 일반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성격특성,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공격성의 차이

1)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성격특성,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공격성의 차이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성격특성,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공격성의 차이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유아의 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t=-2.05,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을 뿐 유아의 공격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지선, 유안진, 1999; Weinberg, Tronick, Cohn, & Olson, 1999).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F=3.53, p<.05$)과 대인관계 공격성($F=3.15,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만3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보다 만5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p<.05$), 반면 만3세 유아의 대인관계공격성이 만5세 유아의 대인관계공격성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5$). 즉,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은 높게 나타나게 되고, 대인관계 공격성은 낮게 표출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은 아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정서표출규칙을 구조화하면서 정서를 좀 더 잘 조절한다는 선행연구(Gottman & Mettetal, 1986)와 맥을 같이 한다.

2)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성격특성,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공격성의 차이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성격특성,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공격성의 차이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일반적 배경에 따른 신경증, 외향성, 강압적 체

벌, 방입, 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공격성, 외현화 공격성의 차이를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들의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모집단의 분산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위, 가족수입, 종교, 가족형태, 부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모연령, 부연령, 모직업, 부직업, 모학력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Duncan 사후검정결과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어머니의 신경증($t=2.41,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 역시 어머니의 신경증($F=4.46,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아버지의 연령과 어머니의 연령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이 신경증적 성향을 더욱 많이 보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유아의 대인관계 공격성($F=2.91, p<.05$)과 외현화 공격성($F=3.4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가 아버지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유아보다 대인관계 공격성과 외현화 공격성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업을 갖지 않은 아버지의 표본수가 적어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차이는 강압적 체벌($t=-2.43, p<.05$)과 유아의 외현화 공격성($t=2.03,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녀의 훈육방식에 강압적 체벌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직업을 갖지 않은 유아보다 어머니가 직업을 갖는 유아의 외현화 공격성이 더욱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어머니의 외향성($t=-2.44, p<.05$)에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의 외향성이 높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표 3)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성격특성,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공격성의 차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신경증		외향성		강압적체벌		방입		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공격성		외현화공격성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부 연령	35세 이하	156	1.94 (.44)	156	2.14 (.45)	156	1.85 (.36)	156	1.58 (.44)	156	2.48 (.48)	156	1.87 (.48)	156	1.64 (.42)
	36세 이상	172	1.82 (.41)	172	2.11 (.51)	172	1.83 (.36)	172	1.60 (.41)	172	2.47 (.49)	172	1.86 (.45)	172	1.66 (.41)
	t	2.41*		.66		.56		-.49		.19		.16		-.43	
모 연령	30세 이하	53	1.99 (.46)a	53	2.20 (.47)	53	1.86 (.37)	53	1.50 (.41)	53	2.48 (.42)	53	1.80 (.45)	53	1.57 (.37)
	31-35세	178	1.89 (.44)ab	178	2.14 (.48)	178	1.84 (.36)	178	1.62 (.43)	178	2.50 (.51)	178	1.88 (.48)	178	1.67 (.42)
	36세 이상	93	1.87 (.38)b	93	2.03 (.47)	93	1.81 (.35)	93	1.60 (.40)	93	2.45 (.49)	93	1.89 (.44)	93	1.67 (.41)
	F	4.46*		2.63		.32		1.46		.33		.75		1.18	
부 직업	공무원/전문직	70	1.87 (.42)	70	2.07 (.44)	70	1.83 (.33)	70	1.62 (.50)	70	2.48 (.41)	70	1.89 (.40)b	70	1.64 (.31)b
	사무직	115	1.88 (.44)	115	2.18 (.48)	115	1.84 (.38)	115	1.57 (.41)	115	2.51 (.49)	115	1.86 (.48)b	115	1.66 (.44)b
	상업/서비스	114	1.87 (.44)	114	2.10 (.52)	114	1.83 (.37)	114	1.55 (.39)	114	2.47 (.51)	114	1.82 (.45)b	114	1.61 (.40)b
	무	23	1.80 (.33)	23	2.06 (.46)	23	1.87 (.32)	23	1.71 (.40)	23	2.39 (.51)	23	2.12 (.50)a	23	1.90 (.52)a
	F	.26		.98		.10		1.10		.45		2.91*		3.40*	
모 직업	유	154	1.88 (.43)	154	2.16 (.50)	154	1.79 (.39)	154	1.60 (.43)	154	2.45 (.51)	154	1.90 (.50)	154	1.70 (.45)
	무	180	1.87 (.44)	180	2.09 (.47)	180	1.88 (.33)	180	1.57 (.41)	180	2.52 (.46)	180	1.83 (.42)	180	1.61 (.36)
	t	.03		1.31		-2.43*		.84		-1.17		1.25		2.03*	
모 학력	고졸 이하	175	1.91 (.42)	175	2.06 (.49)	175	1.87 (.36)	175	1.58 (.41)	175	2.50 (.50)	175	1.88 (.46)	175	1.65 (.40)
	2년제 대졸 이상	166	1.83 (.44)	166	2.19 (.47)	166	1.80 (.36)	166	1.60 (.43)	166	2.48 (.48)	166	1.85 (.46)	166	1.65 (.41)
	t	1.64		-2.44*		1.78		-.42		.26		.45		.03	

*p<.05

3.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1)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남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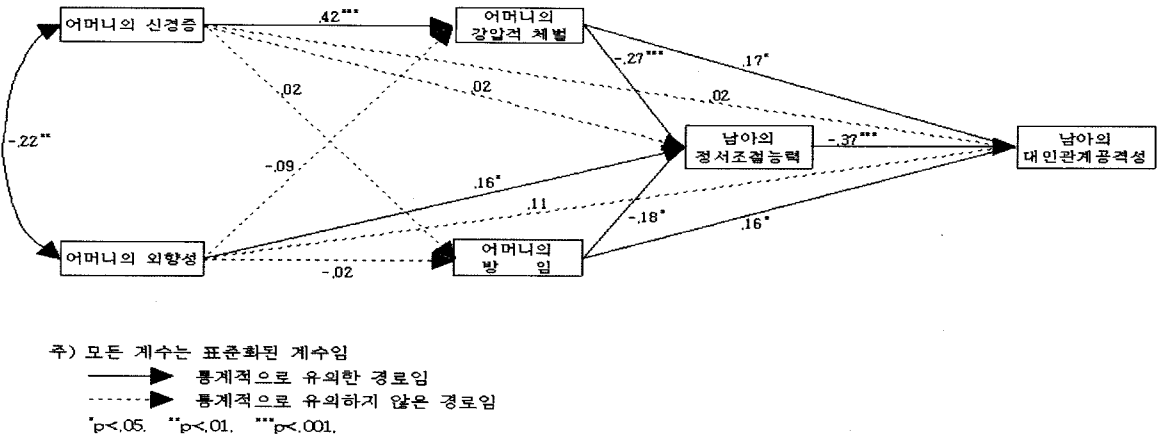
남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관련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8에서 .44의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이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훈육방식과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표 4) 남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관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인	신경증	외향성	강압적 체벌	방입	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공격성
신경증	1.00					
외향성	-.22**	1.00				
강압적 체벌	.44***	-.18*	1.00			
방입	.03	-.02	.12	1.00		
정서조절능력	-.14	.21**	-.31***	-.21**	1.00	
대인관계공격성	.19*	.02	.28***	.31***	-.44***	1.00
평균	1.88	2.15	1.85	1.57	2.44	1.85
표준편차	.44	.49	.36	.41	.49	.42

*p<.05 **p<.01 ***p<.001



〈그림 2〉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통하여 남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론적 모델 〈그림 2〉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분석한 결과 $\chi^2 = 2.60(p>.05, df=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GFI=1.00, AGFI=.90, NFI=.98, RMSR=.03으로 나타나 남아 대인관계 공격성의 이론적 모델은 기준에 부합되어 이론적 모델의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남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직접·간접효과는 〈표 5〉와 같다. 각 변인들에 대한 직접·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신경증이 강압적 체벌, 방임, 남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강압적 체벌에 .42의 직접 효과를,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대인관계 공격성에는 각각 -.12, .11의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격이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기분변화가 심하며, 쉽게 불안해하거나 우울하고, 지나치게 근심걱정을 하는 특성을 지니게 되면 어머니가 남아를 훈육함에 있어 강압적 체벌의 방식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이로 인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저하되며 대인관계 공격성은 높여지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은 강압적 체벌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대인관계 공격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남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직접·간접효과는 〈표 5〉와 같다. 각 변인들에 대한 직접·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신경증이 강압적 체벌, 방임, 남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강압적 체벌에 .42의 직접 효과를,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대인관계 공격성에는 각각 -.12, .11의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격이 정

서적으로 예민하고 기분변화가 심하며, 쉽게 불안해하거나 우울하고, 지나치게 근심걱정을 하는 특성을 지니게 되면 어머니가 남아를 훈육함에 있어 강압적 체벌의 방식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이로 인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저하되며 대인관계 공격성은 높여지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은 강압적 체벌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대인관계 공격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어머니의 외향성이 강압적 체벌, 방임, 남아의 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외향성은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대인관계 공격성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머니의 외향성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에 .16의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며, 대인관계 공격성에는 -.09의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성격이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가 높은 특성을 지니게 되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높이게 되고 그로 인해 향상된 정서조절능력이 대인관계 공격성을 낮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강압적 체벌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강압적 체벌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7이고, 어머니의 강압적 체벌이 남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17의 직접 효과와 .10의 간접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어머니가 남아를 훈육하는데 있어 강압적 체벌의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이러한 훈육방식에 의해 줄어든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대인관계 공격성을 증가시키게 하는 매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

〈표 5〉 남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관련된 변인들의 직접·간접 효과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중속 변인
신 경 증	.42	.	.42	강압적체벌
	.	-.12	-.12	정서조절능력
	.	.11	.11	대인관계 공격성
외 향 성	.16	.	.16	정서조절능력
	.	-.09	-.09	대인관계 공격성
	.	.	.	정서조절능력
강압적 체벌	-.27	.	-.27	대인관계 공격성
	.17	.10	.27	대인관계 공격성
	.	.	.	정서조절능력
방 임	-.18	.	-.18	정서조절능력
	.16	.06	.22	대인관계 공격성
	.	.	.	대인관계 공격성
정서조절능력	-.37	.	-.37	대인관계 공격성

고 있다. 어머니의 방임적 훈육방식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 과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남아의 정서조절능력 에는 -.18의 직접효과를, 대인관계 공격성에는 .16의 직접적 인 효과와 .06의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유아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개의치 않 음으로 긍정적인 훈육을 하지 않게 되면 타인에게 관계의 상 호작용에 해를 입힘으로써 간접적인 공격을 많이 하게끔 한 다는 것이고, 특히 정서조절능력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자 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대인관계 공격성을 더욱 많 이 표출하게 됨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머니의 훈육방식인 강압적 체벌과 방임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대인관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총효과로 이러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에는 강압적 체벌의 훈육방 식(총효과=-.27)이 방임(총효과=-.18)보다 더욱 큰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강압적 체벌이 방임보다 남아의 정서 조절능력을 더욱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 인관계 공격성의 경우에도 역시 강압적 체벌의 훈육(총효과 =.27)이 방임의 훈육(총효과=.22)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 고 있어 강압적 체벌이 방임보다 남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을 더욱 더 높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상대적 영향력이 강압적 체벌(직접효과=.17)과 방 임의 훈육방식(직접효과=.16)의 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 나 두 변인 모두 대인관계 공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 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그림 1〉의 이론 적 모델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즉,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3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낮을수록 자신의 감정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미숙하 며, 상대방의 사고·감정·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 력이 떨어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인관계 공격성을 많이 표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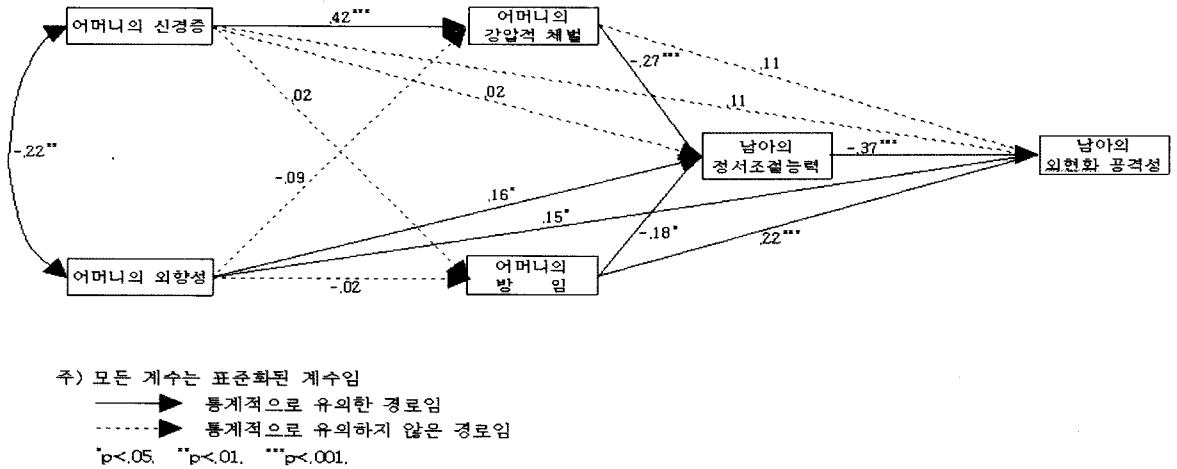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남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관련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 균, 표준편차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수는 .18에서 .44의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이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훈육방식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표 6〉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관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 인	신경증	외향성	강압적 체벌	방임	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공격성
신 경 증		1.00				
외 향 성	-.22**					
강압적 체벌	.44***	-.18*	1.00			
방 임	.03	-.02	.12	1.00		
정서조절능력	-.14	.21**	-.31***	-.21**	1.00	
외현화공격성	.13	-.01	.30***	.26**	-.44***	1.00
평 균	1.88	2.15	1.85	1.57	2.44	1.67
표준편차	.44	.49	.36	.41	.49	.41

*p<.05 **p<.01 ***p<.001.



〈그림 3〉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통하여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이론적 모델은 $\chi^2=2.60(p>.05, df=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론적 모델이 수용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적합성을 나타내는 다른 수치인 GFI=1.00, AGFI=.90, NFI=.98, RMSR=.03으로 나타나 남아 외현화 공격성의 이론적 모델은 기준에 부합되어 이론적 모델의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남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직접·간접효과는 〈표 7〉과 같다.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강압적 체벌에 .42의 직접 효과를,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외현화 공격성에는 각각 -.12, .09의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강압적 체벌의 사용빈도를 높게 되고 이러한 강압적 체벌을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낮아지며 낮은 정서조절능력으로 말미암아 외현화 공격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외향성이 강압적 체벌, 방임, 남아의 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외향성은 어머니의 훈육방식에는 직접·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외향성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에는 .16의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며, 외현화 공격성에는 .16의 직접효과와 -.08의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격이 외향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현화 공격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특히, 어머니의 외향적 성격특성은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직접·간접효과를 모두 보이고 있는데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외현화 공격성을 낮추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작기때문에 어머니의 외향적 성격특성은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강압적 체벌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강압적 체벌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7이고, 어머니의 강압적 체벌이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10의 간접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어머니가 남아를 혼욕하는

〈표 7〉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관련된 변인들의 직접·간접 효과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종속변인
신 경 증	.42	.	.42	강압적 체벌
	.	-.12	-.12	정서조절능력
	.	.09	.09	외현화 공격성
외 향 성	.16	.	.16	정서조절능력
	.15	-.08	.07	외현화 공격성
강압적 체벌	-.27	.	-.27	정서조절능력
	.	.10	.10	외현화 공격성
방 임	-.18	.	-.18	정서조절능력
	.22	.07	.29	외현화 공격성
정서조절능력	-.41	.	-.41	외현화 공격성

〈표 8〉 여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관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인	신경증	외향성	강압적 체벌	방임	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공격성
신경증	1.00					
외향성	.11	1.00				
강압적 체벌	.33**	.01	1.00			
방임	.24**	-.07	.40**	1.00		
정서조절능력	-.03	.05	-.23**	-.19*	1.00	
대인관계공격성	.44**	.13	.34**	.32**	-.32**	1.00
평균	1.86	2.10	1.81	1.59	2.55	1.87
표준편차	.41	.47	.35	.42	.47	.49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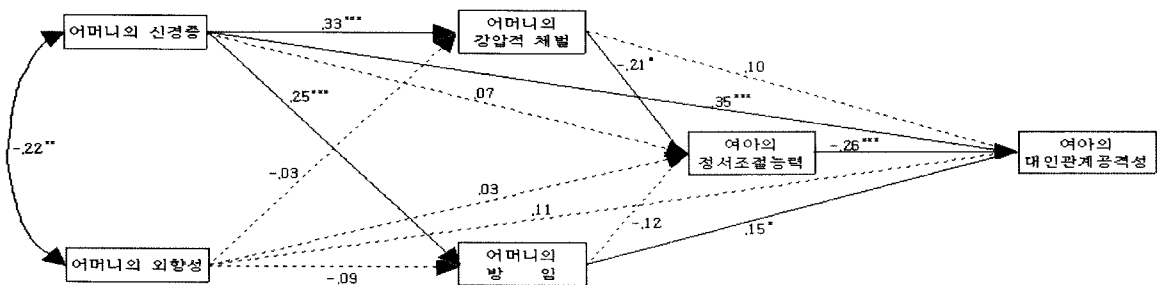
데 있어 강압적 체벌의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훈육방식에 의해 줄어든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대인관계 공격성을 증가시키게 하는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여 남아가 생활하는데 있어 공격유발 대상에게 직접 신체적인 공격과 언어적인 공격을 더욱 많이 표출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방임적 훈육방식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에는 -.18의 직접효과를, 외현화 공격성에는 .22의 직접효과와 .07의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남아를 훈육함에 있어 방임의 방식을 택하게 되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남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4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외현화 공격성을 적게 표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1)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여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여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여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관련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관계수는 .19에서 .44의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이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의 이론적 연구 모델을 기초로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훈육방식과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하여 여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모델의 적합성 검증은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대인관계 공격성은 $\chi^2=19.10, p < .001, df=1$ 로 나타나 이론적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델의 적합도가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증결과 제안된 모형은 적합도가 낮아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그림 5〉와 같이 수정된 모형을 설정하였고, $\chi^2=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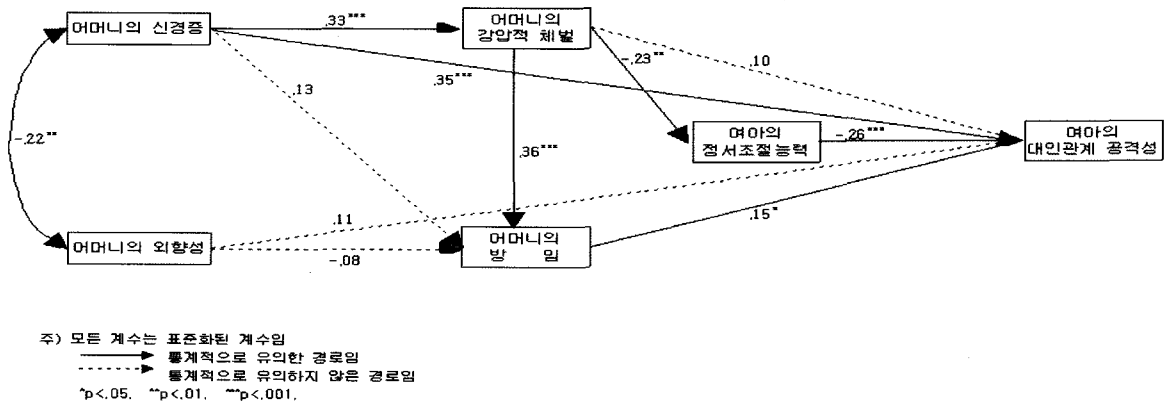
〈그림 4〉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여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p > .05$, $df=4$ 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합치도 지수들은 $GFI=0.99$, $AGFI=.97$, $NFI=.98$, $CFI=1.00$ 으로 모두 0.9이상이며, $RMSEA=0.000$ 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수정모형이 자료와 적합하였다.

이러한 2가지 모형들간의 적합도에 대한 비교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수정은 보통 간명도를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수정과, 적합도를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수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적합도 통계량인 카이스퀘어 통계량을 작게 하는 모형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모형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그림 5>와 같은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훈육방식과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여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어머니의 신경증은 어머니의 강압적 체벌 .33의 직

접효과를 가지고 여아의 방임과 정서조절능력에는 .12, -.08의 간접효과, 대인관계 공격성에는 .35의 직접효과와 .09의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개인정서와 기분이 부정적일수록 여아에게 부정적인 훈육인 강압적 체벌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 강압적 체벌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강압적 체벌로 인해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낮아지게 되고 대인관계 공격성은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강압적 체벌은 방임에 .36,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에 -.23의 직접효과를, 대인관계 공격성에는 .12의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여아를 훈육함에 있어 강압적인 체벌의 훈육방식을 사용하면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떨어진 정서조절능력으로 인해 대인관계 공격성이 높아지게



<그림 5>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여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표 9> 가설모형과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모형	df	χ^2	GFI	NFI	CFI	RMR	RMSEA
가설모형	1	19.10	.96	.87	.86	.073	.340
수정모형	4	3.19	.99	.98	1.00	.030	.000

<표 10> 여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관련된 변인들의 직접·간접 효과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중속변인
신 경 증	.33	.	.33	강압적체벌
	.	.12	.12	방 임
	.	-.08	-.08	정서조절능력
	.35	.09	.44	대인관계 공격성
강압적 체벌	.36	.	.36	방 임
	-.23	.	-.23	정서조절능력
	.	.12	.12	대인관계 공격성
방 임	.15	.	.15	대인관계 공격성
	-.26	.	-.26	대인관계 공격성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훈육방식중 방임은 대인관계 공격성에 .15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여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 -.26의 직접 효과가 나타나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공격성을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여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여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여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관련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9에서 .40의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이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여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론적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울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그림 6>과 같이 외현화 공격성은 $\chi^2=19.10, p<.001, df=1$ 로 나타나 이론적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델의 적합

도가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증결과 제안된 모형은 적합도가 낮아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그림 7>와 같이 수정된 모형을 설정하였고, $\chi^2=5.92, p>.05, df=4$ 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합치도 지수들은 GFI=0.99, AGFI=0.94, NFI=0.96, CFI=0.98로 모두 0.9이상이며, RMSEA=0.000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수정모형이 자료와 적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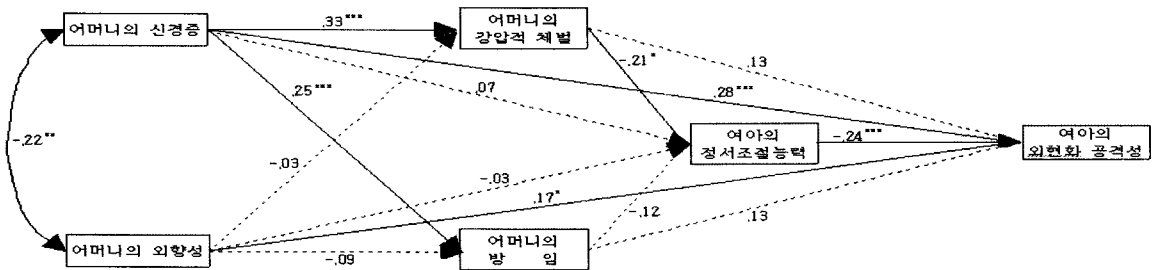
이러한 2가지 모형들간의 적합도에 대한 비교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 수정은 보통 간명도를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수정과, 적합도를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수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적합도 통계량인 카이스퀘어 통계량을 작게 하는 모형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모형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그림 7>과 같은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훈육방식과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여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3>와 같다. 어머니의 신경증은 어머니의 강압적 체벌에 .33의 직접효과를 가지고 여아의 방임과 정서조절능력에는 .12, -.08의 간접효과, 외현화 공격성에는 .32의 직접효과와 .06의 간접

<표 11> 여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관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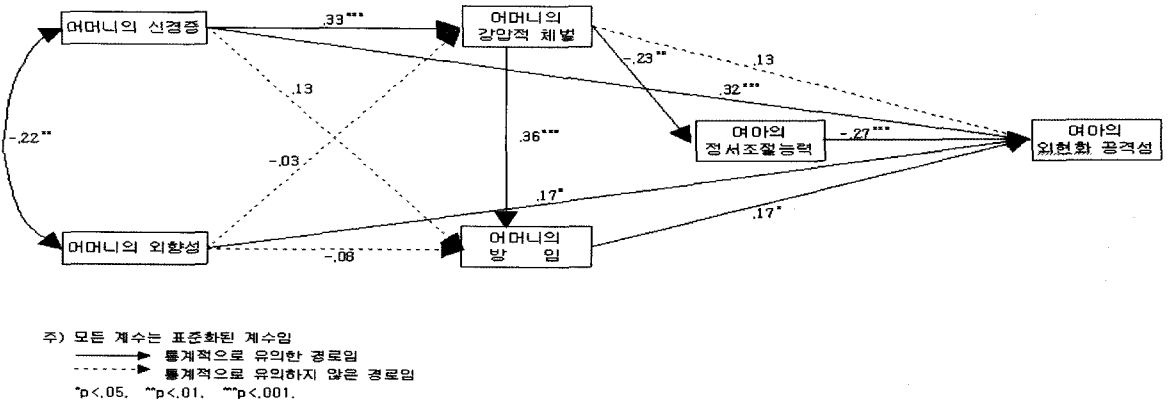
변인	신경증	외향성	강압적 체벌	방임	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공격성
신경증	1.00					
외향성	.11	1.00				
강압적 체벌	.33**	.01	1.00			
방임	.24**	-.07	.40**	1.00		
정서조절능력	-.03	.05	-.23**	-.19*	1.00	
외현화공격성	.38**	.18*	.34**	.29**	-.30**	1.00
평균	1.87	2.10	1.81	1.59	2.55	1.63
표준편차	.41	.47	.35	.42	.47	.40

* $p<.05$ ** $p<.01$ *** $p<.001$



주)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임
 - -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 $p<.05$, ** $p<.01$, *** $p<.001$.

<그림 6>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여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그림 7>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여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표 12> 가설모형과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모형	df	χ^2	GFI	NFI	CFI	RMR	RMSEA
가설모형	1	19.10	.96	.86	.85	.073	.340
수정모형	4	5.92	.99	.96	0.98	.035	.050

<표 13> 여아의 외현화 공격성에 관련된 변인들의 직접·간접 효과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종속변인
신경증	.33	.	.33	강압적체벌
	.	.12	.12	방 입
	.	-.08	-.08	정서조절능력
외향성	.32	.06	.38	외현화 공격성
	.	.01	.01	정서조절능력
	.17	.	.17	외현화 공격성
강압적 체벌	.36	.	.36	방 입
	-.23	.	-.23	정서조절능력
	.	.12	.12	외현화 공격성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신경증적 성향을 가지면 여아에게 강압적 체벌을 많이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강압적 체벌로 인해 여아의 정서 조절능력은 낮아지게 되고 외현화 공격성은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하나인 외향성은 외현화 공격성에 .17의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어머니의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여아의 외현화 공격성의 표출이 많아짐을 알 수 있으며, 정서조절능력에는 .01의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강압적 체벌은 여아의 방입과 정서조절능력에 .36, -.23의 직접효과를, 외현화 공격성에는 .12의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방입이나 강압적 체벌이 여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상호작용하여 외현화 공격성이 높아지게 됨을 보여주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훈육방식과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을 매개로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조기 개입의 방안을 탐색하고 부모교육, 유아교육 및 상담현장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연구의 결과 및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유아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성격특성,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이론적 모델이 남아에게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공격성을 지각하는데 있어 여아보다는 남아의 공격성을 더 크게 인지하고 자각하여 보고하였기 때

문에 여아의 공격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Crick, Casas, & Mosher, 1997; Tomada & Schneider, 1997)에서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은 유형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후후 성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어머니의 신경증은 남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강압적 체벌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는 영향을 미쳐 결국 남아의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자신의 개인 정서와 기분이 부정적일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언어적 혹은 신체적 체벌 등의 부정적 훈육을 사용하게 되고, 부정적 훈육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은 증가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부정적 훈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진순옥, 2002; 이지현, 1998; 최영희, 1995)와 일치한 결과로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개입이 어머니의 부정적 훈육의 사용을 줄이게 되고 다시 공격성을 감소하는 요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공격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개입 역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외향성이 높을수록 자녀는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지게 되며 남아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고 조절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공격성과 외현화 공격성이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활동적이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능력이 자녀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남아의 공격성을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외향성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에는 보다 직접적이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타인과의 관계에 주도적인 부분이 자녀에게 모델링이 되어 자녀가 타인이나 물건 등의 환경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과격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강화하게 되어 외현화 공격성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어머니가 자녀를 훈육할 때 강압적으로 체벌을 하거나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거나 무시하는 방임을 할수록 남아가 자신의 감정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표출하여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부정적 훈육방식이 유아의 정서조절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박혜경, 박성연, 2002; Goleman, 1995; McFadyen-Ketchum,

Bates, Dodge, & Katz, 1996).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나 자녀와의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해당하는 훈육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여 유아에게 모델링이 되어, 유아 역시 일상생활 가운데 갈등이나 감정을 다루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어머니의 강압적 체벌은 남아의 대인관계 공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신체적 체벌이나 언어적 폭력을 통한 훈육을 하기 때문에 남아가 물건을 부수거나 타인을 때리는 등의 외현화 공격을 하게 되면 어머니로부터 더 강한 체벌을 받게 될까봐 우려하여 유아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짜증을 내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을 우회된 방식으로 표현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외현화 공격성보다 대인관계 공격성에 강압적 체벌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아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거나 무시하고 철회하는 방임을 많이 사용할수록 남아의 대인관계 공격성과 외현화 공격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강압적 체벌과 방임이 대인관계 공격성과 외현화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살펴본다면 강압적 체벌보다 방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강압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훈육방식도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자녀의 행동에 대해 묵인하고 철회하며 훈육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게 함을 알 수 있다. 즉, 오히려 부모의 방임이 유아의 공격성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모는 유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논리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개입하고 다루는 것이 유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남아의 공격성에는 어머니의 성격특성 요인인 신경증과 외향성, 그리고 부정적 훈육방식인 강압적 체벌과 방임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유아 자신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표현하는지의 능력도 남아의 대인관계 공격성과 외현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공격성을 개입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나 훈육방식과 같은 부모환경 요인을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이는 유아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성장 발달하기 때문에 부모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며, 성숙한 부모에 의한 교육은 갈등과 감정을 조절하고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유아의 공격성을 다루게 될 때는 부모의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여섯째,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적합치가 수정모델에 의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여아의 대인관계 공격성과 외현화 공격성의 경향성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여아의 대인관계 공격성과 외현화 공격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머니의 신경증임을 나타내고 있어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할 때는 여아를 직접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부모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아의 공격성을 교육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임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이론적 모델은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적합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의 이론적 모델과는 다름이 밝혀졌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남아와 여아의 이론적 모델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유아관련변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고, 이러한 유아관련변인들이 공격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하여 부모의 부정적인 측면의 요인만을 살펴보았는데 미래연구는 공격성과 관련된 부모의 요인 중 공격성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요인만을 살펴보았는데 미래연구는 공격성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요인과 어머니의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의 연령에 따라 공격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각 집단의 표본수가 작으므로 미래의 연구에서는 각 연령에 따른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고 균일하게 하여 연령에 따른 공격성에 대한 차이에 대해 가설적 모델을 세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곽혜경, 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5.
 김경희(2002). 현실요법을 적용한 자기통제 훈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율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49-166.
 김성태(1984). *발달심리학*, 서울: 범문사.

김정택, 심혜숙(1991). *나의 모습 나의 얼굴*. 서울: 한국 심리검사 연구소.
 김정희(2001). 가정환경 요인 및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세은(1994).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 부모의 훈육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일현(1995). 어머니 성격특성과 유아기질 및 적응간의 상관.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경,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박희분(2002). 유아의 공격성 유형과 부모, 교사, 또래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연숙, 조복희(2001).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67-81.
 이경희(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과 공격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희(2003). 유아의 기질, 부모간 갈등 및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ysenck, 이현수(1985). Eysenck의 성격차원에 관한 연구: 한국과 영국. *한국심리학회지*, 5(1), 51-66.
 이지선, 유안진(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이지현(1998). 유아의 기질 및 성에 따른 놀이행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순(198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현진, 박성현(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진순옥(2002).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연희(2001). 학령전 아동의 기질, 부모의 훈육방식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희(1993). 기질과 환경간의 "조화로운 합치" 모델 검증연구(I): 조화로운 합치 정도와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

- 자: 발달, 6, 217-226.
- 최영희(1995).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심리적 안정성의 양육태도 설명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5), 187-196.
- 하은혜,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1995). 한국판 CBCL의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 재구성을 위한 연구. '95임상심리학회 하계학술대회, 93-105.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84). The classification of chil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analysis of empirical efforts. *Psychological Bulletin*, 85, 1275-1301.
- Angold, A., & Costello, E. S.(1995). Developmental Epidemiology. *Epidemiologic Reviews*, 17, 74-82.
-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Vol. 1, pp.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Y: Academic Press.
- Bjorkqvist, K., Lagerspetz, K., & Kaukiainen, A.(1992). Do girls manipulate and boys fight? Developmental trends regarding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8, 117-127.
- Buss, A. H., & Durke, A.(197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43-349.
- Buss, A. H., & Plomin, R.(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Y: Wiley.
- Calzada, E. J., & Eyberg, S. M.(2002). Self-reported parenting practices in dominican and puerto rican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3), 354-363.
-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94-402.
- Casey, R. J.(1996).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with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disorders. in M. Lewis & M. W. Sullivan(Eds.), *Emotional development in atypical children*(pp.161-183).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Coie, J. D., & Dodge, K. A.(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Series Ed.) & N.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pp.779-862). New York: Wiley.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79-588.
- Crick, N. R., & Dodge, K. A.(1989). Children's perceptions of peer entry and conflict situations: Social strategies, goals, and outcome expectations. in S. B. Nadel, J. Attili, & R. Weissberg(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pp. 396-399). Norwell, MA: Kluwer Academic.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avid, C. F., & Kistner, J. A.(2000). Do positive self-perceptions have a "dark side"? Examination of the link between perceptual bias and agg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28, 327-337.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enham S. A., Zahn-Waxler, C., Iannotti, R., & Cummings, E. M.(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 242-249.
- Dodge, K., & Coie, J.(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Child Development*, 58, 219-224.
- Eisenberg, N., Fabes, N. A., Carlo, G., Troyer, D., Speer, A. L., Karbon, M., & Switzer, G.(1992).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 583-602.
- Ellis, S., Rogeff, B., & Cromer, C. C.(1982). Age separation in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99-407.
- Eysenck, H. J.(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Eysenck, H. J.(1982). Why do conditional responses show incrementation, while unconditional responses show habituation?. *Behavioral Psychotherapy*, 10, 217-220.
- Eysenck, H., & Eysenck, S.(1975). *The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London; Hodder & Stoughton.
- Fabes, R. A., & Eisenberg, N.(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abes, R. A., Eisenberg, N., Hanish, L. D., & Spinrad, T. L.(2001). Preschoolers' spontaneous emotion vocabulary: Relations to likability.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 11-18.
- Feshbach, S.(1970). Aggression. in P. Mussen(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Field, N. A. (1994). Dynamic process underlying emotion regulation. in N. Fox(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pp. 152-166)*.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 Fox, N. A.(1994). Dynamic process underlying emotion regulation. in N.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pp.152-166)*.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1977). Are Women alway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4), 634-660.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 Galen, B. R., & Underwood, M. K(1997).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89-600.
- Garner, P. W., & Estep, K. M.(2001). Emotional competence, emotion socialization, and you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 29-48.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odman, S. H., Brogan, D., Lynch, M. E., & Fielding, B.(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 *Child Development*, 64, 516-531.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Gottman, J. M., & Mettetal, G.(1986). Speculations about social and affective development: Friendship and acquaintanceship through adolescence. in J. M. Gottman & J. C. Parker (Eds.), *Conversations with friends: Speculations on affective developm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uze, K. R.(1987). Attention and social problem solving as correlates of aggression in preschool ma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217-234.
- Graham, S., Hudley, C., & Williams, E.(1992). Attributional and emotional determinants of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and Latino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31-740.
- Hall, J. A., Herzberger, S. D., & Skowronski, K. J.(1998). Outcome expectancies and outcome values as predictors of children's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39-454.
- Hardy, D. F., Power, T. G., & Jaedicke, S. (1993). Examining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children's coping with everyday stress. *Child Development*, 64, 1829-1841.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on, S. F., & Mcneilly-Choque, M. K.(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artup, W. W.(1974). Aggression in childhood: Development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9, 336-341.
- Hough, L. M., & Schneider, R. J.(1996). Personality constructs and the effect of response distortion

- on those validit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 581-595.
- Izard, C. E.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 Plenum Press.
- Kagan, J., Mussen, D., & Conger, J.(1979). *Child development & personality*. New York: Harper Row.
- Kagan, J., Reznick, S., & Snidman, N.(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67-171.
- Lazelere, E. M., Ambersun, A. J., & Martin, G. T.(1989). The Toddler Behavior Checklist(TBC): A parent completed assessment of social-emotional characteristics of young preschoolers. *Family Relations*, 38, 418-425.
- Lesser, G. S.(1959).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forms of Aggression and Popularity among lower-class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0, 20-25.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McFadyen-Ketchum, S. A., Bates, J. E., Dodge, K. A., & Petit, G. S.(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2433.
- Offord, D. R., Boyle, M. H., Szatmari, P., Rae Grant, J. I., Links, P. S., Cadman, D. T., Byles, J. A., Crawford, J. W., Blum, H. M., Byrne, C., Thomas, H., & Woodward, C. A.(1987). Ontario Child Health Study: II . Six-month prevalence of disorder and rates of service utiliz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832-836.
-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rry, D. 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 Pope, A. W., & Bierman, L. K.(1999). Predicting adolescent peer problems and antisocial activities: the roles of aggression and de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35-346.
- Porges, S. W., Doussard-Roosvelt, J., & Maiti, A. J.(1994). Vagal tone and the physiological regulation of emotion. in N. Fox(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167-186).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 Rigel, K. F. (1973). Dialectic operations: The final period of cognitive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6, 346-370.
- Rothbart, M. K., & Bates, J. E.(1998). Temperament. In W. Damon & N.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105-176), 5th ed. New York: Wiley.
- Rubin, K. H. (1998).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from a cultur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11-615.
- Rubin, K., Stewart, S., & Chen, X.(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stein(Eds.), *Handbook of parenting*. I. NJ: LEA, 255-284.
- Saarni, C.(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Shield, A., & Cicchetti, D.(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 Slaby, R. G., & Guerra, N. G.(1988).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80-588.
- Tallandini, M. A.(2004).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s doll's house play. *Aggressive Behavior*, 30, 504-519.
- Thompson, R. A.(1994). Emotional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Serial No, 240).
- Tomada, G., & Schneider, B. H.(1997).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peer acceptance: Invariance across culture, stability, and concordance among inform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51, 943-963.

Tremblay, R. E., Masse, L. C., Vitaro, F., & Dobkin, P. L.(1995). The impact of friend's deviant behavior on early onset of delinquency: Longitudinal data from 6-to-13-years-of-ag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7, 649-667.*

Weinberg, M. K., Tronick, E., Cohn, J. E., & Olson, K. L.(1999).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elf-regulation during early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175-188.*

(2006년 10월 31일 접수, 2006년 12월 25일 채택)